

# “결핵관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댁내 평안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 새해를 맞아 제26대 신임 회장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된 점 영광과 더불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대한결핵협회의 발전을 함께 실현해나가고자 합니다.

‘시작’은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담고 있기에 더욱 설레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웁니다. 저 역시 신임 회장으로 취임과 더불어 우리협회를 위해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할지, 몇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크리스마스 쉼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크리스마스 쉼 모금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모금운동의 하나이지만, 최근 쉼 판매가 급감하고 쉼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회는 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쇼핑몰을 개설하여 쉼 이외에 교통카드, 전자파차단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장 쉼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외에도 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쉼 판매방법도 달리하는 등 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복십자의원의 진료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결핵환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복십자의원이 결핵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만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결핵 및 호흡기질환, 내과 등으로 진료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9개 복잡자의원 중 3개 지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환경개선도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결핵 전문병원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수익성도 갖춘 복잡자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PACS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더불어 환자 발견율을 높임으로써, 결핵관리사업과 연구사업을 하는 핵심기관으로서 역할분담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PACS 시스템은 인력난과 효율성,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결핵관리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또한 민간과 공공부문의 결핵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인 PPM(Public / Private Mix) 사업을 정착시켜 신환자의 초치료에만 중점을 두었던 전략을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한 재치료 처방 등 환자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결핵퇴치를 앞당기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결핵연구원은 명실공히 국가결핵사업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노후된 BCG 생산시설은 결핵연구원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결핵연구원의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3천평을 마련하여 BCG 생산시설과 함께 결핵연구원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 경에는 첨단 생산시설을 갖추어 결핵연구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밖에 최근 우리나라 결핵발생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20대 연령층 결핵발병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학 및 군인검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회장으로 취임할 때 어떤 분들은 제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걱정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핵퇴치사업의 현지화 전략을 통해,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결핵퇴치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협회가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 위주로 3년의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다소 설익은 계획이라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보면 분명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로 뛰면서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달라는 당부로 취임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결핵협회장 金成圭 드림